일간지 출판기사 색인

◉ 출판사·연구단체 '상부상조'—한국사회연구소 등 인문·사회과학분야서 활발 / 출판사 지원받아 프로젝트 공동연구 / 「정치학 강좌」 등은 대학교재로도 사용(중앙일보 3월1일 吳炳祥기자)

◉ 프랑스혁명 사상적 기원 금서 352권 연구 분석—「바스티유의 금서」출간 朱明哲교수 / "정보독점 言路차단 폐해 실감"(조선일보 3월2일 朴斗植기자)

◉「출판저널」, 서평문화 새 지평 연다 / 책소식 전문지로 정착 / 화제작·지식사회·출판동향 밀도있게 다뤄 / 고급주의 벗고 독서 대중화에 눈돌려(조선일보 3월2일 崔球植기자)

◉ 우리 詩 이론정립에 큰몫—문학평론가 尹在根씨 국내 최대 「詩論」 출판 / 총6부…원고 4100장 집필에 9년 / 외국과 비교 비평기준 등 제시(중앙일보 3월2일 李京哲기자)

◉ "무단전재"—"인용"공방—중앙일간지 만화가들 「시사만평」제소 / 법정비화…손배·사과문 등 요구(일간스포츠 3월2일 육홍타기자)

◉ 잡지, 창간 줄고 폐간 급증—잡지협회 작년말 통계 / 신규등록 865종…88년보다 1백개 줄어(중앙경제신문 3월2일 金龍善기자)

◉ 학습참고서 저작권료 협상 진전 / 학습자료 발행가 10% 요구(중앙경제신문 3월2일)

◉ 미술전문서적 출간 러시 /「한국근세회화선집」「동양미술대계」「환경조각」(세계일보 3월2일 朴正鎭기자)

◉ "음악은 여유있는 삶의 촉매"—5번째 저서 「음악선생님을 위하여」 펴낸 李康淑교수 / "입시교육 탈피…소외된 '교단의 소리' 수렴"(경향신문 3월3일 安健燁기자)

◉ 만화는 생활의 비타민 건전한 내용 크게 늘어나 / 단속강화로 폐기·수정건수 대폭 줄어(스포츠서울 3월3일 류창하기자)

◉「빛깔있는 책」시리즈 매년 발간 / 민속, 고미술 등 8개분야 52권 선보여 / 전문가해설과 사진 곁들여 이해 쉽게(스포츠서울 3월3일)

◉ 이국서 묻힌 여성항일열사 '자리' 찾아야—중국 연변大 金東和교수 / 연변에만 390명…29명 열전 출간 / 만주 독립운동연구 본격화 / 8월「연변여성운동사」 발간(내외경제신문 3월3일 李允美기자)

◉ 땅소재 작품활동 열기 / 집없는 영세민 고단한 삶 통해 문제제기 / 경제적 모순 정확히 파헤친 작품 나와야(일간스포츠 3월3일 김병훈기자)

◉ "출판문화 지속적 발전 꾀한다"—15일 '서울출판인클럽'창립(일간스포츠 3월3일)

◉ 학술서, 일반에도 뿌리내린다—대우총서 150권 간행…예상밖 반향 / 독자들 지적수준 향상에 힘입어 / 문제해결방법 제시…현대인에 공감대 넓혀(일간스포츠 3월4일 이건기자)

◉ "예수는 서울을 떠나지 못한다"—노동자교회 서덕석목사 시집 「때로는 눈먼 이가 보는 이를 위로했다」펴내(한겨레신문 3월4일)

◉ '글 잘 짓는 법'알려준다—「소설작법」「시쓰기 입문」등 출간 활발 / 원고작성, 표현, 퇴고 등 소개 / 기교 지나쳐 어렵다는 평도(동아일보 3월5일 梁泳彩기자)

◉ 우리의 정서 담겨야 '우리詩論'—「시론」펴낸 평론가 尹在根씨 / 74년부터 구상…집필만 9년걸린 역작(동아일보 3월5일 金承旭기자)

◉ 80년대 베스트셀러, 장르·저서 다양해졌다 / 재벌총수 수필집 밀리언셀러로 / 사회고발·처세술 관련 서적 인기(서울경제신문 3월5일 申正燮기자)

◉「한국사신론」다시 썼다—李基白교수의 30년 베스트셀러 / 일조각서 新修版 출간 / 식민주의사관 청산 서장에 추가 / 국가형성 등 학계 논쟁점도 소개(한국일보 3월5일 李基永기자)

문고본, 보면서 읽는 책으로 장정—고급용지에 원색사진·그림사용 시각적 효과 노려 / 전통문화·민속·생활·취미 등 종류다양 / 제작비 3배 값은 싸 전문지식 대중화(국민일보 3월5일 權赫鍾기자)

◉ 대학출판부, 교양물 간행 꾸준한 인기 / 일반독자 겨냥 문고판 앞세워 서점공략 / 사상·해외명저 번역물 등 '큰 호응'(중앙일보 3월5일 鄭僑溶기자)

◉ 월간 전문지「우리교육」창간—전교조 해직교사 10명 퇴직금 모아 / 현장경험 교류…쓸모있는 자료 엮어 / "관계자·학부모와 함께 보는 잡지되길"(한겨레신문 3월6일 신연숙기자)

◉ "전작 장편소설 쏟아져 나온다" / 일간지 등에 연재후 간행되던 관례 무너져 / 젊은 작가층 중심…출판사의 비용 등 지원(세계일보 3월6일 梁憲錫기자)

◉ 요절시인 기형도의 정신적 편력 한눈에—1주기 맞아 유고집 나와 / 편지·일기·소설·서평 등 담아 / 부조리한 삶과 체험을 독특한 서술로 묘사(세계일보 3월6일)

◉ 동서 도서교류 물꼬텄다—제1회 동경도서전시회 막내려 / 소련 "책팔기 위해 왔다"새 면모 / 한자문화권 세계도약 계기 / 세계 26개국 참가…고유특성 부각 '책의 축제'(조선일보 3월6일 崔球植기자)

◉ 詩서 못다한 내적방황 그려—기형도 1주기 맞아 산문집「짧은 여행의 기록」출간 / 젊은 날의 비극적 세계관 담아 / 기자시절의 비평·일기·편지·단편 7편등(한국일보 3월6일 張寅鐵기자)

◉ 북한실상 소개 책2권 나와—「한국의 보약」「북한개론」 / 북한 원전 토대…연구수준 한눈에 / 정치·경제 탈피 사회전반 다뤄(한국일보 3월7일 李基永기자)

◉ 요절시인 기형도 詩마다 '젊음의 정직성'가득—1주기 맞아 재조명 / 유고산문집「짧은 여행의 기록」출간 / 문학상 제정·시낭송회 등 추모행사 펼쳐(중앙일보 3월7일 李京哲기자)

◉ 80년대 대표작선집, "대표성 기대 어렵다"—평론가 李南昊교수「출판저널」서 주장 / 출판계 앞다퉈 '가요톱10'식 발표 / 이문열·박영한 등 인기작가 누락(서울경제신문 3월7일 申正燮기자)

◉ 출판계에 거센 우먼파워—영향력 막강…출협 첫 여성理事 등장 / 김수경·박현숙·박은주씨 등 사장만 30여명 / 편집장급 백여명…섬세함·기획력 뛰어나(내외경제신문 3월7일 南眞祐기자)

◉ 책 2권에 일본이 들끓고 있다—「메이드 인 아메리카」「全예측 1990년대의 일본」 / 경제적 승리 도취와 복수쾌감 얽혀 선풍적 인기(조선일보 3월9일 崔球植기자)

◉ 책이 나올때마다 '정상'같은 짜릿함이—산악전문출판사 '평화' / 14년간 독자 독점…사진·도서전도 열어(스포츠서울 3월9일 류창하기자)

◉ 출판단체 세집 분가—대한출판문화협회·출판문화운동협의회·서울출판인클럽 / 출협의 사업우선에 반발, 찬반속 이탈(스포츠서울 3월9일 류창하기자)

◉ 장편노동소설 출간 잇따라 /「파업」이어「활화산」등 서점진출 채비 / "관념성 생경한 표현 불구 디딤돌 역할"(한겨레신문 3월9일 조선희기자)

◉「영어학대사전」곧 발간—국내학자 총동원 10년작업 결실 / 신언어학 등 12개분야 연구 집대성 / 명저 해설 곁들여 학술자료집 구실(국민일보 3월10일)

◉ 부담없는 선물 도서상품권 본격 추진—출협 등서 규제 해제운동 나서 / 여론도 67%찬성…"독서문화 활성화 계기"(경향신문 3월10일 安健燁기자)

◉ 전문서적 휴간에 미술계 우울 / 열화당「미술연감」「선미술」도중하차 / 진흥원 도움없고 팔리지도 않아 '이중고'(스포츠서울 3월12일 김혜경기자)

◉ 박경리·이문열·이청준씨 작품 해외 출판—문예진흥원 「토지」등 10여종 영불서 출간키로(스포츠서울 3월12일 박찬기자)

◉ 창작동화 번역물 앞질러 '무럭무럭'—80%차지 2~3년새 급성장…'백설공주'류 퇴조 / '창비아동문고' 등이 기폭제 베스트셀러로 부상 / 명랑·추리 등 재미치중…독서습관 그릇될까 우려(국민일보 3월12일 權赫鍾기자)

◉ 도서출판 '국민1인당 2.8권' 꼴—작년 1억2천여만부 / 참고서 2/3 차지, 아동도서 2위…책두께 점차 얇아져(국민일보 3월12일)

◉ 개방바람 타고 쏟아졌던 북한원전, 올들어 퇴조기미 / 판매부진·단속강화로 출판사들 기피 / "주체사상 찬미 일변도"호기심 줄어(중앙일보 3월12일 鄭僑溶기자)

◉ '대체교과서'대학강단서 인기—「한국사강의」「새로운 사회학강의」 등 10여종 / 젊은 학자 진보적 학술성과 공동저술 / "개론서 위주서 전공분야로 확대될 것"(한겨레신문 3월13일 신연숙기자)

◉ "학계 보혁논쟁을 강의실로"대체교과서 출간 붐 / 진보학술단체 본격 편찬작업 / 민중적 시각 지배이데올로기 비판 / 기성학계 "방법론 숙지 못한 이론지향성 위험"(조선일보 3월13일 朴斗植기자)

◉ "사제 학문 대잇기"결실—조순·정운찬 공저 「경제학원론」 / 스승 업적전수·최신이론 접목…새로운 전통(조선일보 3월13일)

◉ 극작가 李恩成씨 유작모아「소설 동의보감」출간 / 사후 2년만에…미완성 원고정리 3권으로 / 조선시대 醫聖 허준의 인생역정 그려(세계일보 3월13일)

◉ 젊은이 중심 '서울출판인클럽' 결성—교육프로 개설 등 출판문화발전 힘모아(매일경제신문 3월14일 李奉澔기자)

◉ 故 林鍾國씨 후속연구자 기다린다—유족들「총서」발간 遺志계승 바라(한국일보 3월14일 徐華淑기자)

◉ 고정이미지를 탈피, 출판사들 변신 바람 / 학술·교재 등 전문성 벗고 출판 다양화 / 새 기획의 단행본들 베스트셀러도 등장(세계일보 3월14일)

◉ 문예지, 새봄 맞아 큰 변신 시도 / 표지·판형 바꾸고 내용 다양화 / 문예진흥원 지원중단…살아남기 총력(중앙경제신문 3월14일 朴海鉉기자)

◉「대장의 노래」국내 첫 완역 출간—노벨상작가 칠레 네루다 서사시집 / 남미문학의 정수…핍박받는 농민 그려(중앙경제신문 3월14일)

◉ 허준·정약전 생애, 학문 소설화—이은성「소설 동의보감」·황인재「떠오르는 섬」 / 불우한 시대의 창조적 삶 형상화 / 우리 과학유산 소재 다뤄 고무적(한국일보 3월15일 朴來富기자)

◉ 퇴계전서 체계적으로 정리, 본격 주석서 중국서 간행—인민대학 張立文교수「退溪書節要」 / 문장부호·가로쓰기 등 고전정리의 모범 / 핵심내용을 빠짐없이 수록…알기쉽게 편찬(세계일보 3월15일 李仲洙기자)

◉ 우수문학작품선정 다시 싣는 문예지 늘었다 / 문단팽창·독자서비스측면서 확산추세 / 문인들 "심사받는 기분이어서 불만"(중앙일보 3월16일 李京哲기자)

◉ "구성원 의식변화 없인 사회구조 개선 불가능"—「변혁시대의 사회철학」 펴낸 金泰吉교수 / 철학대중화 앞장…"아집 버리고 합리적 사고를"(조선일보 3월16일 朴斗植기자)